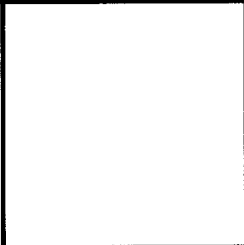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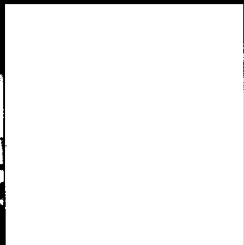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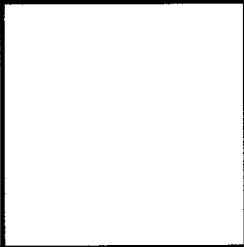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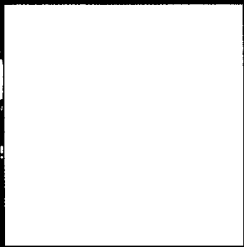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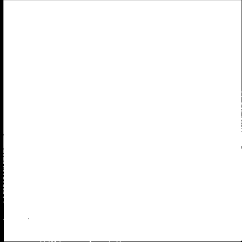


Photonics Movements

광산업동정



한국광산업진흥회
업무협약 MOU체결

LED 사업전략
전문가

**세계대표자대회 수출상담회, 수출돌파구
국내외 기업 181개사, 해외바이어 650여명 참석**

150여개 국내 기업들이 4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제3전 시장에서 열리는 World-OKTA(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였다.



수출상담회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가 4월 27일부터 열고 있는 '제11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이벤트다.

국외 기업 29개를 포함, 나라안팎에서 모두 181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40개국 79개 도시의 해외 한인 무역인 대표자와 경제·무역업에 종사하는 해외동포인 650여명이 전시부스와 상담테이블에서 국내제품 수출상담을 추진하였다.

수출상담은 모두 8개 분과로 나눠 국내외 기업 92개의 부스와 89개의 상담테이블에서 진행되었다.



광관련업체는 ▲글로벌광통신, 엘이디라이텍(주), (주)골드텔 등 21개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터전, (주)에코웍스, 그린라이프 등 천연·바이오섬유 관련 5개업체 ▲한국제다, (주)연수당복분자 등 식품 관련 15개업체, ▲서암기계공업(주), (주)태청하이테크 등 기계·금형 관련 16개업체 ▲이앤비테크, (주)광민기업, (주)제로하우스 등 전열·건설 관련 6개업체 ▲(주)서희정보기술, (주)인터세이

브, 우진공예사 등 예술·게임 등 관련 4개업체 ▲바이오닉스(주), (주)태봉, (주)명신메디칼 등 건강식품·의료부문 10여개 업체 등 77개 우수중소기업이 참가해 제품의 기술력을 홍보하였으며 판로 개척에 나섰다.

2009세계광엑스포 홍보와 광·금형·비엔날레,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단체 및 World-OKTA 후원기관으로 구성된 홍보관 20개 부스, 광주시가 육성한 '감칠배기'(김치 14종)와 '예담은'(떡 7종) 등 6개 시식코너도 운영되었다.



수출상담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후1시 전시장 입구에서 열렸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고석화 World-OKTA 회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진영복 상근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시식코너를 비롯한 각 업종별 업체를 방문, 참가제품을 살펴보았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상담현장을 둘러보았다.

오전10시10분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는 업종별 분류된 8개 분과별 국제위원회의가 열려 각 위원회별로 국내기업 14개업체의 기업사업설명회를 통해 해외바이어에게 회사소개와 제품홍보에 나섰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모집한 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내기업과 해외 동포 바이어 들간의 1대1 사전 매칭을 진행, 기업에 이메일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참가를 독려했다.

광주광역시시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동포들에게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세계 속에 광주를 알리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판로 개척을 도모를 위해 계획되었다.

수출상담회에서 도출된 수출계약 등 35억 규모의 MOU 체결식이 폐막식에 앞서 치러졌으며, 폐막식은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오후6시 부터 진행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월 6일 광주를 방문하여 국립 5·18민주묘지, LG이노텍,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을 방문하여 '광주발전 정책토론회', '시정현안 간담회' 등 광주

의 과거, 현재, 미래와 두루 조우하며 시민들과 호남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격의없이 이야기할 자리가 마련 되었다.

김 의장은 오전에 국립 5.18민주묘지와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LG이노텍을 방문하여 생산라인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한국 광기술원을 방문해 친환경 신성장동력산업 현황을 청취하였다. 또한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전시홍보관도 방문하여 전시된 제품들을 보며 광주광산업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세계적 빛도시 및 기업, 광엑스포 참여 열기 높아



빛과 광산업을 주제로 오는 10월 열리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이하 광엑스포)에 세계적인 빛도시와 조명기업들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속속 참여의사를 밝혀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세계광엑스포재단에 따르면, 세계빛도시참여관에 리옹과 브뤼셀을 비롯한 도시와 필립스(Philips), 쏘(Thorn), PLDA (Professional Lighting Designers' Association) 등 기업들이 최종 참가 의사를 통보해왔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필립스나 쏘와 함께 조명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PLDA가 참여하게 돼 세계빛도시참여관의 콘텐츠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참가의사를 밝힌 도시와 기업 외에도 캐나다 몬트리올, 중국 광저우, 영국 글래스고, 프랑스 파리 등 다수의 세계 선진 빛도시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시와 상호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도시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엑스포재단은 그동안 멕시코의 산루이스포토시, 프랑스 리옹, 캐나다 몬트리올 등에서 개최된 LUCI(세계빛도시연합) 행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해외도시와 기업에 대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광엑스포 기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인 세계빛도시연합 연차총회(LUCI AGM·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 Annual General Meeting)에 참석하는 대다수 LUCI 회원국들이 세계빛도시참여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광저우와 센다이 등 광주시의 자매도시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의 도시들도 세계빛도시참여관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30여개 이상의 도시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빛도시관의 도시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세계최초로 빛을 테마로 한 2009광주세계광엑스포는 '미래를 켜는 빛(Light, opening the future)'을 주제로 주제전시, 산업·전시컨퍼런스, 빛축제의 세부부분으로 구성해 오는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광주상무시민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옛 도청일대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LED가로등 시범사업추진

광주광역시가 LED가로등을 설치해 지역 LED산업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의 주요 행사장인 상무 시민공원내 도로에 LED가로등을 시범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사업자 공모 후 한국광기술원과 공동으로 기업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발한 뒤 6월중 설치하고, 설치후에는 제품성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LED가로등의 기술수준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LED조명의 실증시험을 해보는 것으로, 국내기술수준을 파악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광산업의 핵심성과인 LED조명을 세계적광엑스포 행사장에서 설치해 광산업 제품의 전시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전기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차지하는 조명분야에서 LED조명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가장 큰 소자로 정부의 녹색성장산업의 대표모델로 LED조명 확산을 위해 KS규격 제정 등 다각도로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산업의 성공적 산물인 LED조명 산업을 광주에서 꽃피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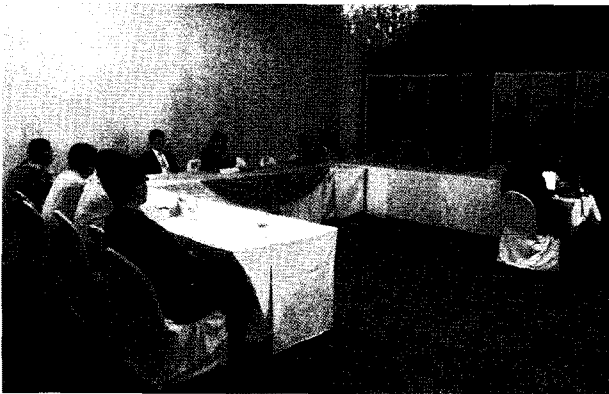
LED가로등은 LED가 갖는 높은 발열성과 직진성으로 인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수준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실증시험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LED가로등의 장·단점과 운영상 문제점을 모니터링해 제품별 특성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LED가로등을 구성하는 부속 전기장치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포함한 우수제품의 기준규격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광역시청>

LED 제품 생산업체 미주지역 진출방안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와 본회 회원사 9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LA에서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미국 현지 업체인 DYPC 김정



현 대표이사 발표로 개최되었다. 동 사업설명회에서는 미국 현지 월마트와 코스코사의 LED제품 수급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LED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향후 추진될 월마트와 코스코사의 진출을 위해 국내 LED 생산업체 중 20여개사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국내 업체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LED 제품 생산업체를 모집중에 있으며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광주인력개발원
광산업현장 생산가능 인력양성 취업연계
업무협약 MOU 체결**



한국광산업진흥회 (www.kapid.org, 회장 허영호)에서는 광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한 현장 생산가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광산업현장 생산가능 인력양성 교육을 위해 2009. 4. 27(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광주인력개발원은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광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상으로 약 3~6개월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생산가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업체 재직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은 물론 법정필수이수교육인 산업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및 지게차 운전면허증 교육 등을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은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기초기술 교육 및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광산업체의 인력수급에 안정을 기함은 물론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인력개발원은 재학생 수 600여명 규모로 컴퓨터응용기계학과 등 5개학과 6개 직종을 전문 1년,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훈련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년 2,000명 이상의 재직근로자들에게 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LED 사업전략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 LED 사업전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매일경제의 공동 협력하여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7주간)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한다.

신성장동력 LED에 대한 제반 핵심노하우와 비즈니스모델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관련기업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본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히 본회를 통해 교육참가를 신청할 경우 회원사는 교육비의 20% 할인, 비회원사는 교육비의 5%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대상

LED 관련 기업 임직원 및 CEO
(LED 사업 확장 및 신규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

교육일정

2009년 5월 9일 ~ 06월 27일
(매주 토요일/오전10:00 ~ 15:00)

교육비

1,300,000원(교재비, 식사비 등 제반 경비 포함 / VAT없음)
※ 회원사(20%할인) 1,040,000원 (1차 2인 수강 시 1인 95만원 적용)
※ 비회원사(5%할인) 1,235,000원 (1차 2인 수강 시 1인 110만원 적용)

교육장소

롯데쇼핑 인재개발원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2] 약도 참조]

문의&신청

박정선 대리 [Tel] 062-605-9634, pjs75@kapid.org
[Fax] 062-605-9650

※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한국광산업진흥회 <http://www.kapid.org>
(공지사항 229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